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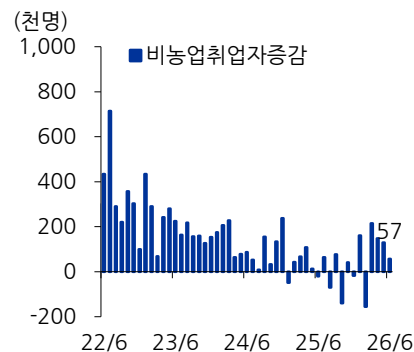
Global Economy

경제/자산배분 방인성(PhD)
6145/isbang@eugenefn.com

6월 고용: 식어가는 고용, 끈적한 임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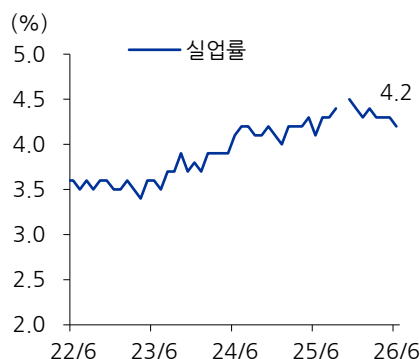
- “ 6월 비농업 부문 고용은 +5.7만명 증가에 그치며 시장 예상(+11만명)을 대 폭 **하회**함. 4월(+17.9만→+14.8만)과 5월(+17.2만→+12.9만) 수치도 합산 7.4만명 하향 조정됨. 최근 3개월 평균은 +11.1만명으로 양호하나, 지난 12개월 평균이 +3.6만명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**3~5월의 '고용 재가속' 기대에 제동이 걸림**.
- “ 실업률은 4.2%로 전월(4.3%) 대비 0.1%p 하락하며 12개월래 최저치를 기록함. 다만 **하락의 배경은 고용 증가가 아닌 노동 공급 위축임**. **경제활동참가율이 61.5%로 0.3%p 급락(2021년 3월 이후 최저)했고**, 경제활동인구는 72만명, 가계조사 기준 취업자는 50.7만명 감소함.
- “ 업종별로는 전문비즈니스(+3.6만), 교육 및 보건(+6.9만)을 중심으로 증가함. 반면 호텔·레저는 -6.1만명으로 큰 폭 감소했는데, 당초 기대됐던 월드컵 특수는 나타나지 않음. 여타 업종은 대부분 보합에 그쳐 **고용 증가의 확산은 여전히 제한적임**.
- “ 가계조사 부진과 하향 수정치를 감안하면 3~5월 고용 재가속 국면은 사실상 일단락됨. 다만 참가율 하락으로 손익분기 고용 증가폭 자체가 낮아진 만큼, 현재의 증가세를 급격한 냉각으로 해석하기도 어려운 애매한 구간임.
- “ 시간당 임금은 37.64달러로 전월 대비 +0.3%(13센트) 상승했고, 전년 동월 대비로는 +3.5%로 전월(+3.4%)보다 오히려 높아짐. 주당 근로시간은 34.3시간으로 변동 없음. **고용 둔화 국면임에도 임금 상승 압력은 여전히 끈적하게(?) 유지되고 있음**.
- “ 한편 5월 CPI는 이란 전쟁발 에너지 가격 급등의 여파로 전년 대비 4.2% 상승해 3년래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인플레이 압력은 여전히 높음. 6월 FOMC(워시 의장 첫 회의)는 금리를 3.50~3.75%로 동결했으나, 점도표상 18명 중 9명이 연내 인상을 전망(연말 중간값 3.8%)하는 등 무게중심은 금리 인상 쪽으로 기울어 있었음.
- “ 이번 **고용 부진으로 연준의 조기 인상 압력은 완화됨**. 발표 직후 9월 인상 기대가 후퇴하며 2년물 금리는 하락했고, 주식시장은 긴축 우려 완화를 긍정적으로 반영함. 7월 FOMC(7/28~29일) 동결은 사실상 **기정사실화된 상태임**(CME FedWatch 기준 82.4%).
- “ 관건은 7/14일 발표될 6월 CPI임. 에너지발 물가 상승세가 재확인될 경우 9~10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 높아질 수 있음.

비농업취업자수 +5.7만명 증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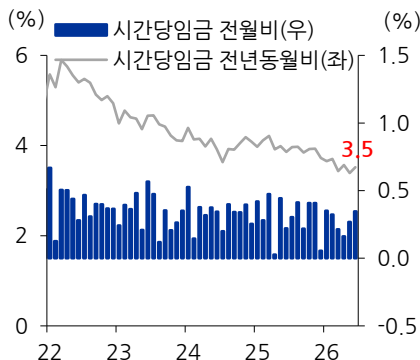
자료: CEIC, 유진투자증권

실업률은 4.2%로 하락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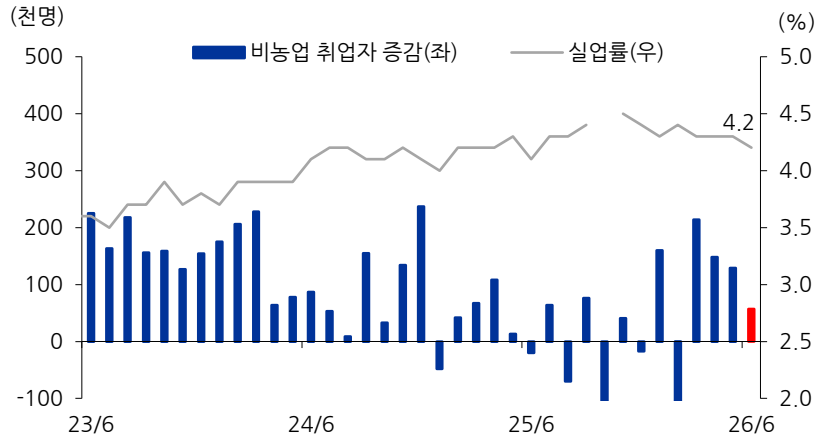
자료: CEIC, 유진투자증권

시간당 임금은 +3.5%yoy 증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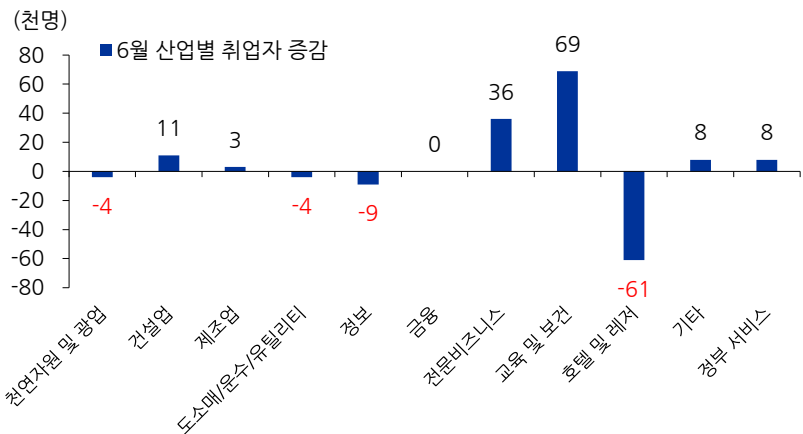
자료: CEIC, 유진투자증권

비농업 부문 취업자는 5.7만명 증가, 실업률은 4.2%로 하락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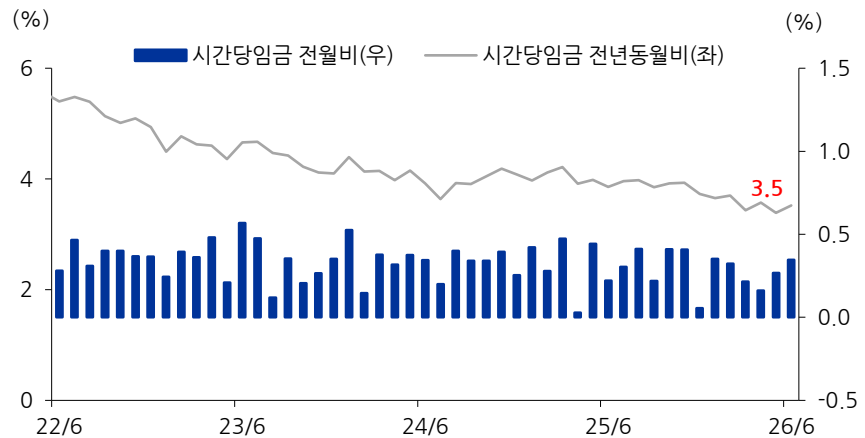
자료: CEIC, 유진투자증권

호텔·레저 부진 속 전문비즈니스·교육보건 중심의 증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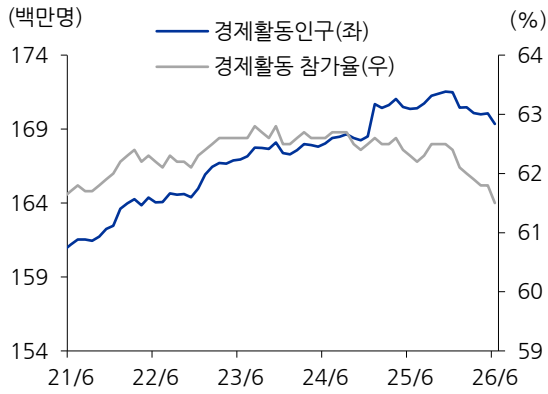
자료: CEIC, 유진투자증권

시간당 임금은 +3.5%yoy 증가하며 상승폭 재확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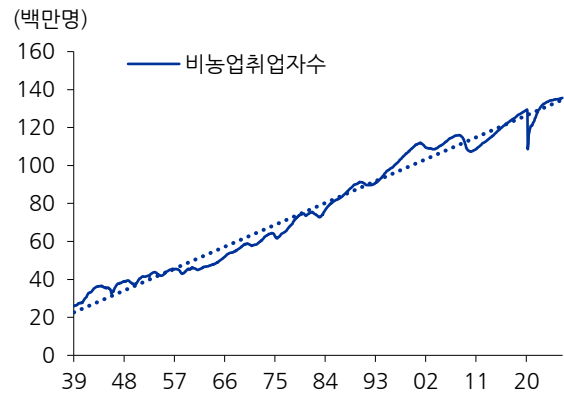
자료: CEIC, 유진투자증권

경제활동참가율 61.5%로 하락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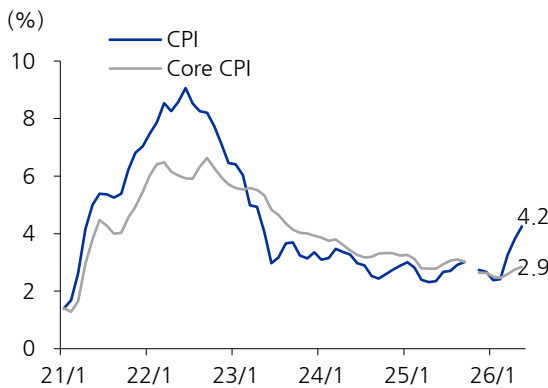
자료: CEIC, 유진투자증권

비농업 취업자수와 추세



자료: CEIC, 유진투자증권

헤드라인 물가는 +4.2%yoy로 높은 수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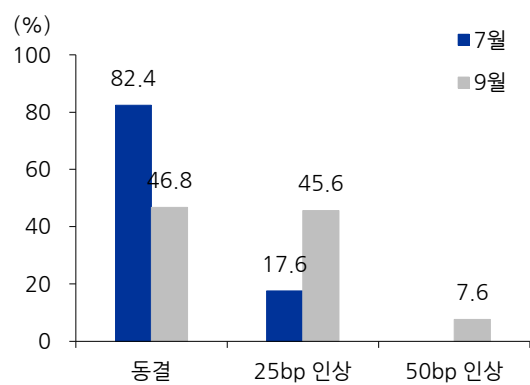
자료: CEIC, 유진투자증권

휘발유 소매가격은 4 달러 아래로 하락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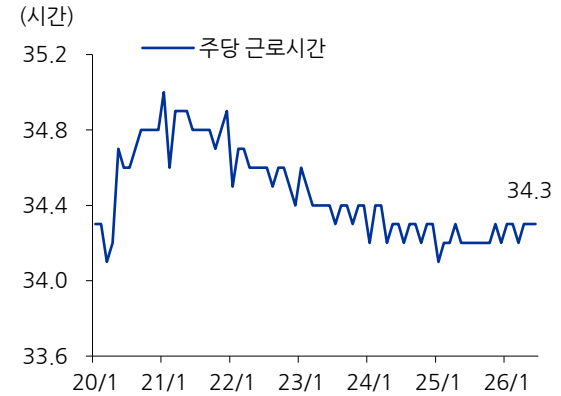
자료: Refinitiv, 유진투자증권

9월 금리 인상 가능성 후퇴



자료: CME FedWatch, 유진투자증권

주당 근로시간은 34.3시간으로 변동 없음



자료: CEIC, 유진투자증권

Compliance Notice

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

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

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

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

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

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습니다

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, 대여할 수 없습니다

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
